정진원의 석보상절 이야기 ⑰ 싯달타 태자의 설산 수행



▶ 한줄요약

출가한 싯달타 태자는 설산으로 입산해 아람가란과 울두람불을 만나 6년 간의 고행을 이어간다. 태자는 욕계와 색계를 넘어 바로 무색계 선정을 닦았는데 이는 전생의 수행 인연이 있기에 가능했다. 태자의 고행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들 라훌라가 태어났다.

설산 입산한 태자, 무색계 수행 시작

싯달타 태자의 출가는 빈 말만 붙들고 돌아온 마부에 의해 기정사실화 되고 부왕은 결국 다섯 비구를 엄선해 따라가게 한다. 태자는 욕계와 색계를 넘어 무색계의 선정을 닦는 스승을 찾아 6년 간 수행을 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그림 · 강병호

마부 차닉 귀환과 가족의 미련

차닉이 보관을 가지고 돌아오니 왕이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고 구이는 말의 고개를 안고 우셨다.

오십칠장

태자의 보관(寶冠)이 오거늘 아버님 보시고 땅에 엎어지며 우시니

마부 건특이 오거늘 왕비 구이 보시고 말 고개를 안고 우시니

처음 〈석보상절〉을 읽을 때 '차닉이' 와 '건특이'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다. 마부와 말의 비중이 다른 주요 등장인물에 못지않기 때문이었다. 결국 차닉이(Chandaka)는 출가를 하고 아라한이 되었다고 한다. 애마 건특이는 성으로 돌아와 목숨을 곧 마친 후 33천에 났다가 바라문의 아들로 태어나 석가모니의 교화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태자가 사라지자 아버지 정반왕과 아내 구이는 태자의 보관과 애마의 목을 끌어안고 슬픔을 이기지 못한다.

왕이 차닉이 보시고는 태자 가신 데를 가려 하시더니 신하들이 사뢰었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추심(推尋)하겠습니다"하고 모두 추심하여 가니 나무 밑에 계시거늘 바라보며 사뢰었다. 추심은 고누어 찾는 것이다.

아버지 정반왕은 싯달타 태자가 떠난 곳으로 찾아가서 데려오려고 한다. 아버지의 절절한 심정이야 오죽하겠지만 아내 구이는 말의 고개를 안고 슬피 우는 장면이 더 처연하다. 그것을 본 신하들이 찾으러 가겠다고 한다.

여기서 추심은 '곤가 찾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곤가' 는 처음 듣는 낱말이라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추심(推尋)은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냄' 이라고 정의되고 '인물추심' 은 '도망한 사람을 샅샅이 더듬어 찾음' 이라고 풀이되어 있다. '곤가' 는 '고노다' 를 기본형으로 보는데 '꼲다' 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도 생소하다.

'꼲다' 는 '꼬느다' 라고 나오고 △'무게가 좀 나가는 물건의 한쪽 끝을 쥐고 치켜들어서 내뻗치다'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연필 따위를 힘주어 쥐다' 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리하여 현대에 남아 있는 '꼬나 보다' 라는 말의 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없이 쓰던 말의 뿌리는 이토록이나 깊어 사유에 사유를 거듭해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모두를 종합하면 '곤가 찾다' 는 '마음을 잔뜩 가다듬고 한쪽에 힘을 주어 샅샅이 찾는다' 는 뜻이었다. 그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뜻인 줄만 알았던 '꼬느다' 의 역사를 태자의 출가에서 재발견하는 묘미가 있다.

생로병사의 수고와 오비구

태자께서 말씀하셨다.

"은혜야 모르리오마는 네 가지 수고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이다." 하시고 일어나 선인이 있는 데로 가셨다.

그 신하들이 교진여들 다섯 사람을 모아 가시는데 보살피라 하고 돌아왔다. 다섯 사람은 교진여와 마승, 마하남, 십력가섭, 가섭, 구리태자이다. 태자가 산이며 물이며 가리지 않고 다니시므로 다섯 사람이 미덥지 못해 거기서 살았다.

신하들이 가서 간곡히 정반왕이 돌아오라고 하는 뜻을 전하니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지만 나 또한 생로병사 네 가지 괴로움을 여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출가를 했노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수행하는 선인들이 있는 곳으로 떠나니 신하들은 다섯 수행자들에게 태자를 부탁하고 돌아온다. 〈석가보〉에 따르면 정반왕은 대신들의 자제를 선발해 보내고 돌아오면 집안을 멸할 것이라고 했다한다. 또 아버지의 친척 셋, 어머니의 친척 둘을 남겼다는 설도 있다.

다섯 명은 나중에 싯달타 태자가 깨달음을 얻고 처음 설법하는 다섯 비구이기도 하다. 곧 첫 제자 아야 교진여, 사리불과 목련을 귀의시킨 마승, 아라한이 된 마하남, 바부라고도 불리는 십력가섭, 석가모니의 사촌 구리 태자 등이다. 이름은 음차와 의역으로 경전마다 조금씩 다르다.

'태자가 산이고 물이고 가리지 않고 다니시니 다섯 사람이 그에게 미치거나 따르지 못해서 함께 살았다' 라는 뜻이 일차 직역이나 〈불설태자서응본기경〉에 태자를 보필하지 못하면 집안을 멸하겠다는 왕의 지엄한 명령이 있어 태자와 머물게 됐다는 말도 있다. 여기서 '미덥다' 라는 말이 파생되지 않았을까 하여 의역하였다.

> 욕 · 색계 넘어 무색계 선정 닦아
> 전생수행 인연 있기에 가능한 일
> 출가한 아들생각에 가족들 애끓어
> 태자, 설산서 6년간 고행을 이어가

수행자를 만나다

태자가 미루산 아람가란이라 하는 선인이 있는 데 가셔서 불용처정(不用處定)을 삼년동안 익히셨다. 불용처(不用處)는 쓰지 않는 곳이니 그것이 무소유처이다. 정(定)은 일정하다는 뜻이니 불용처의 공부에 마음을 일정하게 하므로 불용처정이라 한다.

태자가 출가하여 스승 찾아 처음 가는 곳이 미루산이다. 수미산이라고 한다. 여기서는 왕사성 밖의 아람가란 선인이 살던 산으로 볼 수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욕계 육천' 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산인데 그 위의 하늘인 '색계' 를 지나 '무색계' 의 선정을 닦는 수행자를 만나러 가고 있으니 말이다.

태자의 스승 '아람가란' 은 알라라 칼라마(Alara Kalama)이다. 아라라 선인(阿羅羅 仙人)이라고도 하는 수론(數論) 파의 수행자로 석가모니가 출가했을 당시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명상 스승이었다.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뒤에는 석가모니 교단을 따라다녔다. 싯달타 태자에게 "지혜의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태자가 29세에 출가했을 당시, 알라라 칼라마는 120세였다. 16세에 출가해 104년째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300명의 제자가 있었다고 한다. 선인은 외도 수행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불용처정'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라는 삼계를 알아야 한다. 오온(五蘊) 중 색(色)을 제외한 수(受) · 상(想) · 행(行) · 식(識)만으로 구성된 세계를 말한다.

이러한 무색계의 선정(禪定)에는 4단계가 있다. △공무변처정(空無邊處定, 허공처럼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 △식무변처정(識無邊處定, 식이 무한하다고 보는 경지) △무소유처정(無所有處定,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지) △비상비비상처정(非想非非想處定,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이 그것이다. 이것은 욕계정(欲界定), 색계정(色界定)보다 적정하며 욕망이나 물질에 대한 상념이 없게 된 경지이다.

이 무색계의 세 번째 '무소유처정' 을 '불용처정' 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쓰지 않는 곳에서의 선정' 이란 존재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무소유의 경지를 이른다는 의미이다. '선정' 의 뜻도 멋지다. '공부에 마음을 일정하게 하는 것' , 그것이 선정이다.

그곳에서 3년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한다. 도사 밑에서 물긷기 3년, 땔나무하기 3년 하는 옛날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런데 태자는 왕궁의 성을 넘어 출가하자마자 욕계와 색계를 넘어 무색계에서도 맨 마지막 3단계부터 수행을 시작하고 있다. 무수한 전생의 수행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이미 그 단계를 뛰어 넘어 세간의 중생을 교화하러 오신 분이기에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울두람불이라 하는 선인이 있는 데 가셔서 비비상처정(非非想處定)을 삼년동안 익히고 생각하셨다. '선인의 일이 큰 번뇌(結)야 없지마는 생사를 벗어날 도리가 아니로다'하시어 버리고 가셨다. 결(結)은 얽매인다는 뜻이니 큰 번뇌에 매여 자득(自得)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두람불에게 오고 가실 때 부처의 나이 스물 둘이시니 주나라 소왕 47년(B.C.949년) 을해이다.

울두람불은 태자가 아람가란 선인을 떠나 왕사성 곁에서 비상비비상처(非想非非想處)의 선정을 가르친 스승이다. 울두람자(鬱頭藍子), 우타라라마자(優陀羅羅摩子)라고도 한다. 〈증일아함경〉에 의하면 태자가 정각을 이루고 처음 법을 전하려 하였으나 죽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다섯 비구를 처음으로 제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색계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비상비비상처' 의 선정을 닦았음에도 생사를 벗어날 도리가 아님을 깨닫고 그 스승을 떠난다. 무색계의 선정을 닦아도 남아 있는 결업(結業) 곧 번뇌는 마음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얽매이게 한다는 것이다. 〈월인천강지곡〉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오십팔장

아람가란에게 태자가 무소유처 선정(不用處定)을 삼년 익히시니

울두람불에게 비상비비상처 선정(非非想處定)을 삼년 또 익히시니 〈월천21b〉

사실 이들은 외도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태자는 극도의 고행과 '수하항마' 끝에 정각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무색계의 끝 단계인 수행도 아득한데 거기서도 정각을 이루지 못한다니 내가 범부인 것이 한없이 작게 느껴지다가 차라리 다행이라고도 생각이 든다.

이렇게 6년간의 고행을 하고 있을 때 구이(야수다라)는 라훌라를 출산한다. 출가 후 6년이 지난 뒤 일어난 기적 같은 일에 석가의 종족들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연구교수〉

일일시호일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